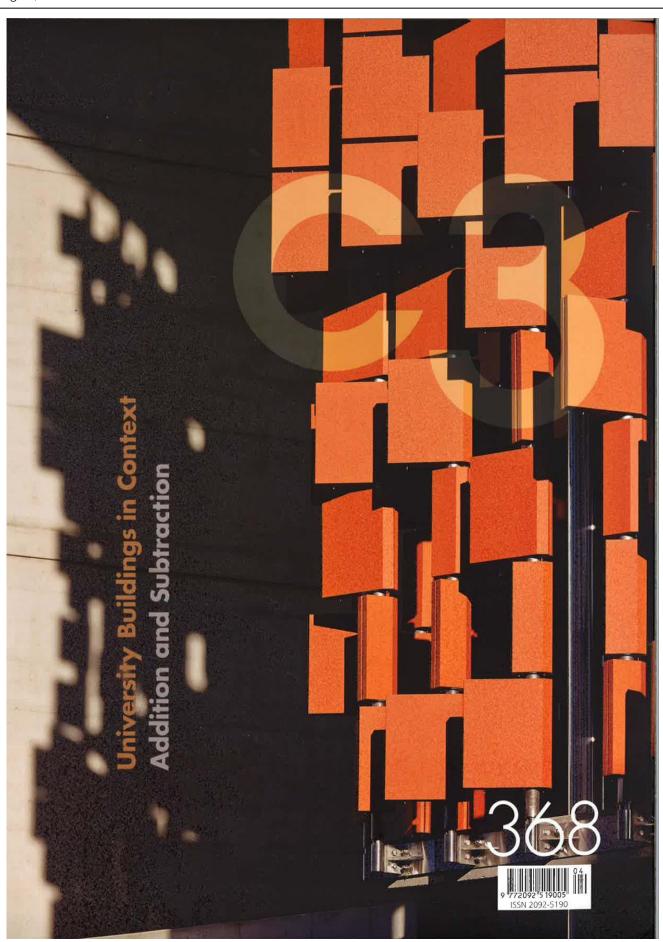


Page 1/12



Comedie de Bethune - National Drama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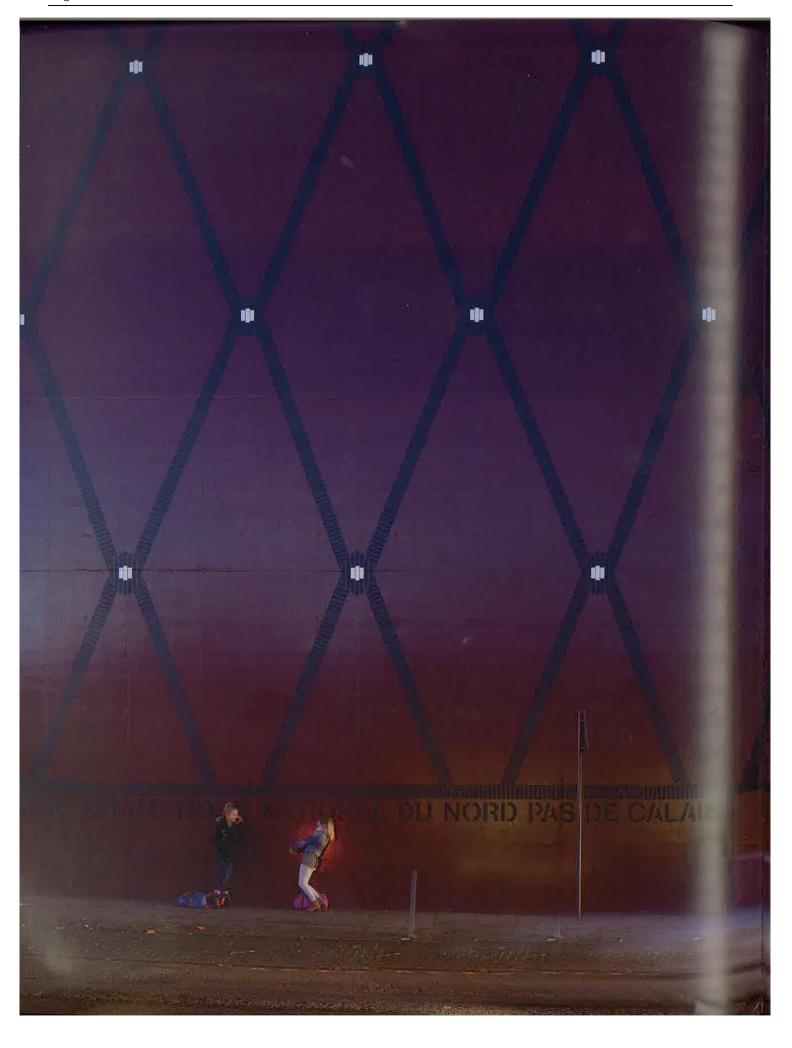
Manuelle Gautrand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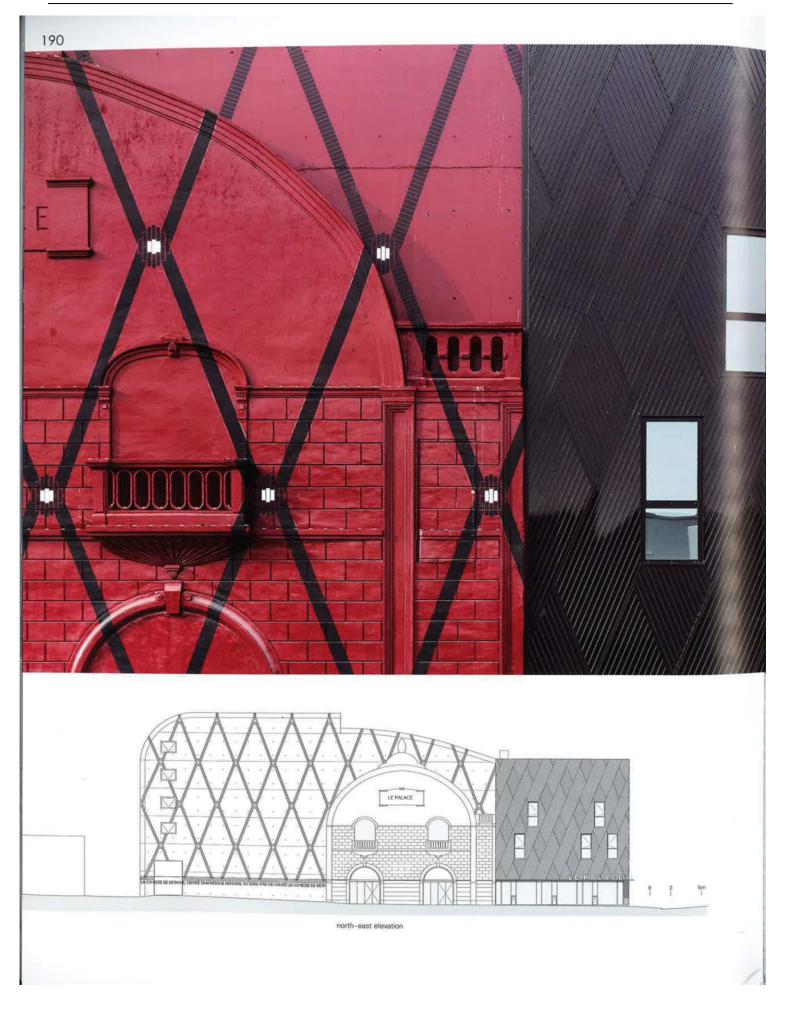
Since the 1980s, culture has become a priority in the development of the Nord-Pas-de-Calais area; "La Comédie De Bethune" reflected the will of the elected representatives of the department to be equipped with a National Drama center. Place of reference and artistic excellence where the theater can express itself in all its forms and reach all audiences, the building contributes strongly to the attractiveness of the area and represents the most emblematic cultural equipment of the city. Installed in a marquee with three hundred seats in 1992, the theater moved in 1993 in an old powder magazine, built by Vauban and refurbished into a "Studio Theater" which is still used nowadays. There was initially a movie theater called "The Palace" built in the 1930s on the present site of "La Comédie De Bethune". The facade of the building maintained by girders, was all that was left when it was demolished in the 1990s. Today, the street corner house having been demolished, the extension was able to be realized after 16 months of work, partially in occupied site.

The Extension

The extension is located on the corner of the plot, on three levels: a volume of high-rise located on the same level as the natural ground, and dedicated to the rehearsal room; then a level of offices, which links with the existing office floor to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The size of the rehearsal room allows relocating the hall on the corner of the two roads, a provision that already existed during the competition in 1994. This position has several advantages: it allows to give a better visibility to the theater and to make the coffee bar more accessible. The coffee bar formerly located under the volume of the room's floor, could not benefit neither of a direct entrance from the Avenue Victor Hugo, nor a natural lighting. Now, the construction of the hall corner connects directly to the coffee, bringing a natural lighting and making it an animated and welcoming passageway. Above, the administration has a larger and more functional space thanks to the extending from the second floor of the existing theater.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Many spaces have also been changed within the existing building. Indeed, since the delivery of the original building 15 years ago, the safety regulations have evolved considerably. This project therefore involved the upgrading of the entire building. Several safety regulations were concerned, including the fire safety regulations and the accessibility to all spaces of the theater for disabled people. The extension also required the construction of a staircase located on the right of the future hall and serving on the first floor the upper level of the rehearsal room of the CNAD (National Academy of the Dramatic Arts) and its additional premises, and the offices on the second floor. Finally, the building reached the most ambitious thermal and energy regulations.





The Room Above The Pit

The agency used all these work to complete this room, which had been left «raw»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original building, into a second rehearsal room without grid, and smaller than the main rehearsal room, with an access facilitated by the raising of the staircase of the offices.

The facades

The conception of the facades had to integrate the highly visible part of the initial project, this large rounded volume with the

smooth corners, fully lacquered in purple. Finally, it's in black that the agency coated this extension: a deep and powerful color. To create a soft link with the initial volume, this black is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kind of weaving metal panels, which are drawing large rhombuses, to remind the ones of the purple rounded shape.

The existing building is assembled on a diagonal frame which allows attaching those shaped panels. The waves of these panels, mat and glossy, take the ligh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degree of shine and their orientation to the light.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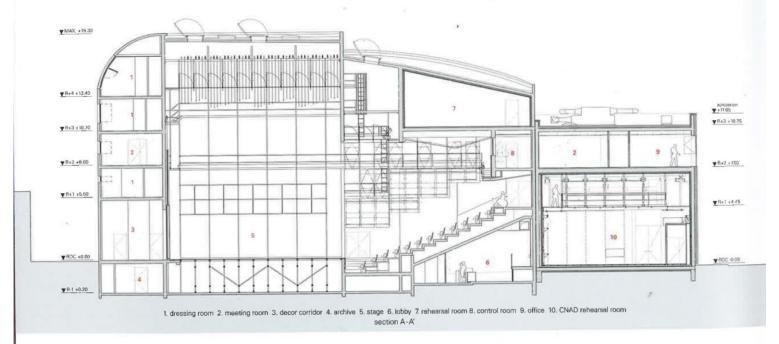
베툰 국립 드라마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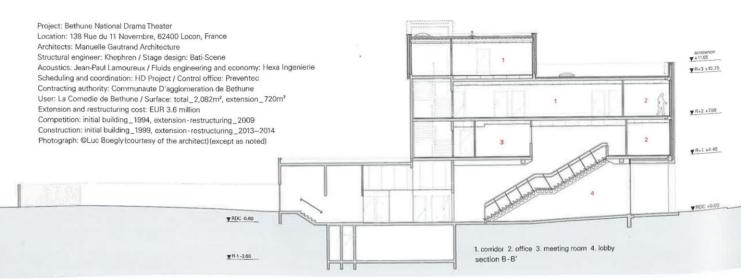
프랑스 최북단에 위치한 노르파드칼레 지방에서는 지난 1980년부터 지역 문화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전면적인 확장 공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연극 전용극장, 노르파드칼레 국 립 드라마센터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기존 건물의 형태와 특성들은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한 채 필요한 부분만을 덧댐으로써, 한 건물 안에 과 거와 현재가 공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드라마센터의 역사는 1992년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300석 규모의 대형 천막 구조물을 세우면서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는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옮긴다. 루이 14세 시대, 프랑스 건축가 보방이 설계한 탄약고 건물을 드라마센터로 활용하기 로 한 것이다. 입면을 구성하는 대들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철거하는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이뤄졌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탈바꿈한 모습으로 지난 20년을 지내왔다. 그리고 작년 말, 센터 바로 옆에 있던 오래된 집이 철거되면서 센터는 대지를 매입했고 다시 한 번 확장이 이뤄졌다. 더불어 센터의 이름도 베툰 국립 드라마센터로 바뀌었다. 이렇게 새 얼굴, 새 이 름으로 다시 태어난 극장은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관객들에게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면서 지역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 명소 로 거듭나고 있다.

시설의 확장

길모퉁이에 자리하는 새 건물은 기존 건물의 높이에 맞춰 3개 층으로 계획 되었다. 건물로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물 전면에 맞 닿아 있는 두 도로의 교차점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허설과 사무공간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경로로 들어가든 1층 중앙 에 배치된 카페테리아에서 모두 만나게 된다. 원래 카페테리아는 지하에 있





었는데, 밖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도 없고 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아 편 안한 휴식처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작업을 통해 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외에도 1층에는 널찍한 리허설장이 새로 마련되었고, 2층과 3층은 아카이브나 회의실 등 주로 사무용 공간이 배치 되어 기능적으로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졌다.

기존 드라마센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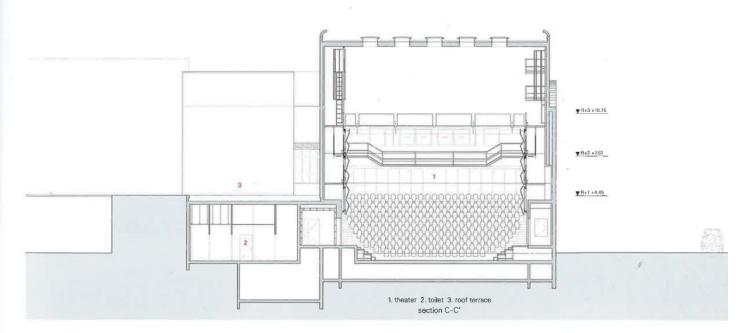
맞추어 세워진 건물에는 그동안 변경된 기준들이 모두 새로이 적용되었다. 다. 또한, 시각적으로 두 건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기존 건물에 그려 화재 규정과 장애인을 위한 진입 공간 확보 등 여러 안전 기준들이 추가되 어 건물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게 된 것이다. 또한, 단열 및 에너지 기준도 모두 최고 수준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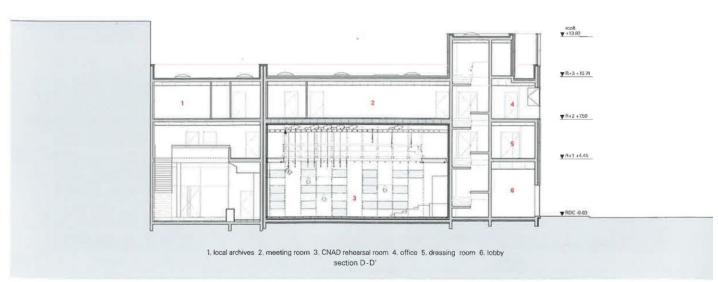
방치된 공간의 활용

극장 일부가 철거된 이후 방치되었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층의 1층 로비 근처로 위치를 옮김으로써 빛으로 가득한 밝고 활기 넘치는 중요 리허설장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은 두 번째 리허설장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간들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도 만 들었다. 이로써 센터는 모든 공간이 상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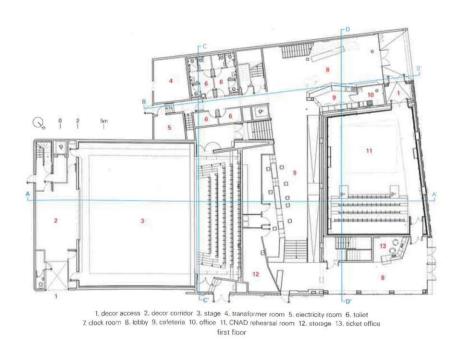
기존 드라마센터와 조화를 이루는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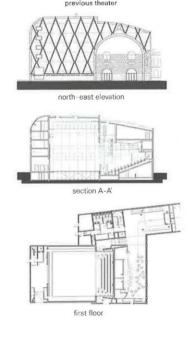
매끄러운 지붕 모서리에 전체가 자주색으로 덮여있는 거대한 기존 드라마 확장과 함께 기존 건물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먼저 20여 년 전 건축법에 센터와 통합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새 건물은 검은색으로 마감하였 진 마름모꼴 무늬를 새 건물에도 똑같이 새겼다. 대각선의 금속 틀로 조립 된 마름모끌 판을 서로 엮은 것이다. 금속 틀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있 고 이들은 빛의 방향에 따라 평평하거나 광을 내어 물결을 이루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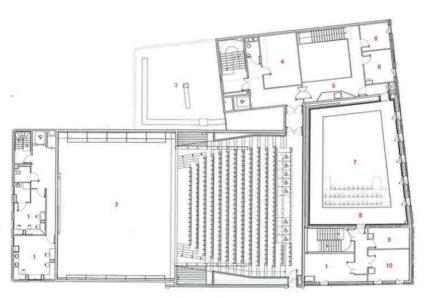












dressing room 2. stage void 3. roof terrace 4, meeting room 5. lobby
6, office 7, CNAD rehearsal void 8, bridge 9, electricity room 10. storage
second floor

>>116

Henning Larsen Architects

Is 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mpany in Denmark, with strong Scandinavian roots. Founded by Henning Larsen in 1959, and is currently managed by CEO Mette Kynne Frandsen and Design Director Louis Becker. It has offices in Copenhagen, Oslo, Munich, Istanbul, Riyadh, the Faroe Islands and a newly established office in Hong Kong. Its goal is to create vibrant, sustainable buildings that reach beyond itself and become of durable value to the user and to the society and culture that they are built into. Its ideas are developed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client, users and partners in order to achieve long-lasting buildings and reduced lifecycle costs. This value-based approach is the key to our designs of numerous building projects around the world-from complex master plans to successful architectural landmarks. Won the prestigious European Union Prize for Contemporary Architecture-Mies van der Rohe Award 2013.

해녕 라슨 아키텍츠는 스칸다나비아에 근간을 둔 덴마크 건축사무소다. 1959년 해녕 라슨이 설립했으며, 지금은 CEO인 메테 카인 프랑센과 디자인 디랙터 우이 배카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이끌고 있다. 코렌하겐과 오슬로, 뮌헨, 이스탄롱, 리아드, 테로제도에 아어 최근 홍콩에도 새로운 자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건물 그 자세를 넘어, 사람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형반의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참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과 사용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내구성 있는 지속 가능한 건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은 오렌 기간에 걸쳐 이러한 가치 중심의 집근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 마스터플랜터 각종 랜드마크 건축에 이르는 다수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원공했다. 2013년에는 마스 반 데어 로에 상을 받았다.

>>134

mizo

Was set up in Bienne, Switzerland in 1997 as team of several architects. The work covers a very broad range, from urban development to matters of detail and from industrial projects through to museum ones. They have deliberately opted for variety in staffing their office of around twenty with individuals representing different cultures, ages and experience which promotes a multifaceted office culture. The lively internal debate gives birth to many different kinds of project, but these have one element in common: total dedication to the location and job entrusted to them. Has already won more than fifty competition awards, and more than twenty of these projects have also been realized.

1997년 스위스 바멜에 설립된 건축사무소 mizd는 도시개발 및 아리 산업 분야와 연계된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설립해왔다. 20여 계국에서 모인 다양한 출신의 직원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인종, 경험을 공류하며 청조적인 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활발한 내부적 논의를 통해 뚜렷한 개성을 지난 프로제트들을 현실화시키고 있으며, 국내 외 각종 공모전에서 50회 이상 당선되고 그중 20개 이상을 이며 완공하면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50

Rafael Hevia

Received an Architecture degree from the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hile(PUC) in 2000. Has worked since then till 2007 at Mathias Klotz's office. Later he runs his own office, designing buildings, houses and furniture. Currently teaches at the Architectural Faculty of Diego Portales University(UDP).

칠레 출신의 건축가 라파엘 헤비아^{에는} 지난 2000년, 침레 가동락대학교에서 건축으로 학위를 받았다. 출입 이후 2007년까지 마티아스 클로츠 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이후 자신의 사무소를 설립한 뒤 다양한 건축과 인테리 어 직업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교 건축학부에 출강 중이다.

Rodrigo Duque Motta

Was born in 1975 in Santiago, Chile. Received an architecture degree from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in 2001. Has worked in Mathias Klotz's office as project leader from 1999 to 2003 and he established his own office Rodrigo Duque Motta Arquitectos. Was awarded the Youths Class Awards of the Architecture's College as the best Chilean architect under 35 years old. Currently is a studio professor at the Diego Portales University.

로드리고 두께 모따⁹²⁴는 1975년, 침례 산티아고에서 태어났다. 2001년에는 침래에 있는 폰티파갈 가톨릭대학교 에서 건축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재학 중이던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마티아스 클로츠 사무소에서 프로젝트 건축기로 실무를 쌓았다. 2003년에는 로드리고 두께 모따 아르키백또스를 설립했다. 자국 출신 35세 미만의 기장 유망한 젊은 건축가 중 하나로 꼽혀 성을 받았으며, 현재 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교의 교수로 제정하고 있다.



>>186

Manuelle Gautrand Architecture

Is a Parisian based architecture firm founded in 1991 by Manuelle Gautrand who was born in France in 1961. She has received a lo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chitecture Awards for several of her buildings and was awarded the Legion of Honor by the French Government in 2010. Her team of over 20 architects develops projects for public contracting authorities as well as private firms both in France and abroad.

프랑스 태생의 마누엘 가우트랑드는 1991년에 파리에서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설립해 현재 대표이자 선임 디렉터 작을 맡고 있다. 그녀의 파트너인 마크 블레이싱이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명 이상의 건축가가 팀을 이루어 프랑스 국내외의 공공 분야 및 상업 분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마누엘은 프랑스 국내 및 세계 무대에서 명망 있는 건축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2010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표착을 받았다.

>>64

Legorreta + Legorreta

Victor Legorreta was born in Mexico City, 1966 and studied Architecture at the Ibero-American University in Mexico City. After practicing in several architectural firms, he joined Legorreta Arquitectos in 1991 and the name of the firm changed to Legorreta Legorreta in 2000, representing a new organization. Is now a partner and design leader at Legorreta + Legorreta. Has lectured in numerous universities and conferences in the USA, and Latin America. Has also been a member of several juries, such as Design competitions for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J. In 2007, Victor is awarded as an Honorary Member of AIA.

박터 레고레타는 1966년, 액시코시티에서 태어나 이배로-아메리카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총업 이후 몇몇 서우소에서 성무를 익힌 뒤 1991년에 레고레타 여르까 액또스에 입사됐으며, 2000년에 파트너로 승진하면서 사무소의 이름을 레고래타+래 고레타로 개명됐다. 미국과 남미의 어린 대학교와 컨퍼런스에서 다수의 강연용 한 바 있으며, 미국 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설계 공모전에서 십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미국 건축가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주대되었다.